

음성변화에 있어서의 음절의 역할*

文 洋 秀

(언어학과 교수)

1. 머리 말

오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던 언어변화 가운데 음성변화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젊은이 문법학파의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그 후 음성변화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이 분야에 많은 업적이 나왔다. 그러나 음성변화의 원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음성변화에 관한 설명도 만족할 만한 상태는 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음성변화를 음절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음절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 음성변화 가운데 특징적인 일부만이라도 다루어 보면서 더 광범위한 음절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더구나 초기 생성음운론에서조차 아무런 지위를 얻지 못하던 음절이 최근에 와서는 음운론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통시적인 연구에서도 음절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더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시적인 음성변화 현상도 함께 다루어지게 된다.

먼저 음성변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음성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음절에 관한 것은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려 한다. 음절이라는 단위가 필요한 것이며 실재하는 것임을, 심리적, 음성학적, 그리고 음운론적인 면에서 찾아 본다. 또한 음절구조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음절이론을 따라 음성변화에서 음절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음성변화를 분류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동화, 이화, 음전위, 첨가 그리고 상실현상으로 분류하여 이 유형속에서 음절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음성변화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분야 가운데에서 음성변화(sound change)는 많은 학자들의 오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것에 관한 많은 종류의 설명이 제시되어, 가장 발달된 분야라 할

* 이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수 있다. 해결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음성변화의 원인에 관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음성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음성변화의 결과는 기술하고 설명할 수가 있으므로 많은 학자들은 이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음성변화’라는 술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음성적조건하에 있는 어떤 한 음이나 한 부류의 음에 영향을 주는 변화만을 가리킨다. 이것은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난 음을 지니고 있는 모든 낱말들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음성변화’는 두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발음하기 어려운 음을 발음하기 쉬운 음으로 대치하는 공시적 현상을 가리키는 음성적과정(phonetic process)과, 둘째는 언어발달사의 한 시점에서 한 음과 그 다음 시대의 한 시점에서 그 음이 발달되어 생긴 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통시적인 음성적대응(phonetic correspondence)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된다.

공시적인 음성적과정과 통시적인 음성적대응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랍어의 역사에서 $s > \phi / V ______ V$ 와 같은 음성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모음사이의 s 가 h 로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h 가 모음사이에서 탈락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으므로, $s > \phi / V ______ V$ 의 음성변화는 i) $s > h / V ______ V$ 과 ii) $h > \phi / V ______ V$ 의 두 개의 음성적과정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s > \phi / V ______ V$ 는 음성적대응이지 음성적과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물론 공시적 현상인 음성적과정이 통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나 음성적과정이 발음상의 편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¹⁾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시적인 음성적과정과 통시적인 음성적대응을 합해서 음성변화라 부르기로 한다.

음성변화에 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년 밖에 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도 오늘날의 이론에 바탕이 되는 설명들이 있었으므로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9세기 후반 Leipzig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 문법학파의 학자들은 음성변화에 관해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음성변화의 절대적 규칙성을 기본가정으로 하였다. 즉, 규칙성가설(regularity hypothesis)이다. 그리고 그들은 음성변화와 다른 모든 언어변화를 구별했으며, 또한 이화현상, 동음탈락, 도치현상과 같은 음성변화는 그들이 부르는 음성변화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현상에서는 규칙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음성변화는 규칙적이며 음성적으로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낱말에 동일하게 일어나며 기계적으로 일어난다. 단지 음성변화의 규칙성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추에 의해 생긴 불규칙적 형태만이다. 이들은 산발적 음성변화(sporadic sound change)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그들 이전의 학자들은 산발적 음성변화의 개념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젊은이 문법학파들이 발음의 편이를 위한 조음적 동기

1) 회랍어에서 $u > i$ 와 같은 음성변화는 $u > y > i$ 의 음성적과정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때, 발음상의 편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를 받아들여 음성변화를 순수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지만, H. Paul과 같은 학자는 음성변화를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심리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²⁾ 음성변화의 조건은 생리적이며 또 생리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으나, 음성변화를 낳게 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Bloomfield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을 과학의 한 분야에 넣고 있어, 그들이 다루고 있는 언어학이 과학적이어야 하므로 젊은이 문법학자들의 기본가정을 그들도 받아들였다. 음성변화의 절대적인 규칙성을 인정하고 산발적 음성변화의 개념을 거부하였으므로 비음성적인 요인들은 음성변화 설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loomfield와 같은 학자는 음성변화에 대하여 젊은이 문법학자들의 주장만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음성변화는 동적인 현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 비교와 재구 자료를 통하여 음성변화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고적인 명칭이라는 더 진보된 생각을 하였다. 공시적인 음운론 연구에 중점을 둔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게 음성변화에 관한 연구는 음소변화의 연구이었다. 그들은 화자의 조음운동 습관이 변할 때에 음성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되지만, 한 언어의 구조체계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음성변화가 일어난다고 인정하게 된다.

생성문법 이전에는 음성변화에 관한 설명의 대부분이 조음의 편이와 같은 언어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문법에서는 음성변화를 언어능력의 변화라고 본다. 한 시대의 어떤 한 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 시대에 다른 음으로 그 음 자체가 변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을 규정하는 문법이 다르다고 본다. 문법을 규칙의 체계로 본다면 음성변화는 규칙의 변화인 것이다. 규칙의 변화는 기저표시의 변화로 나타난다. 생성문법학자들은 젊은이 문법학자들의 규칙적 음성변화의 가정을 지지하지만 모든 규칙적인 음성변화는 음성적으로 조건지위 진다는 가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형태론적, 형태음소적, 혹은 통사론적 조건을 허용하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문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음성변화를 음소체계의 변화인 음운론적인 변화와 동일시하고 있다.

음성변화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먼저 조건변화(conditioned change)와 무조건변화(unconditioned change)로 구별된다. 무조건변화는 한 음의 음가가 모든 환경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조건변화는 일정한 환경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 조건적 음성변화를 다시 대체적으로 동화(assimilation), 이화(dissimilation), 음전위(metathesis), 첨가(epenthesis) 그리고 상실(deletion)로 분류하게 된다. 물론 다른 종류의 분류도 가능하나 이 논문에서는 이 분류를 따라 음절과 연관된 논의를 전개해 나가

2) 후행동화(regressive assimilation)와 같은 것은 순수한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음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려 한다.

3. 음 절

음절에 바탕을 두고 각 음절마다 기호를 가지는 음절문자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절이 기본적인 언어단위로 실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문자가 없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낱말을 구성요소로 나누어 보게 하면, 그들은 이 낱말을 음절단위로 나누고 더 이상 세분화하지 않는다던가, 언어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낱말을 제시하고 그 낱말들 속에 소리가 몇개 있는가를 말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절 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등은 음절이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단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에서의 모음이 비자음(nasal consonant) 앞에서 비음화하는 선행적 공동조음(anticipatory coarticulation)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ban'에서 비자음 [n]을 발음하기 위해서 혀 끝이 조음적 접촉을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연구개는 이미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그 결과 모음 [æ]는 비음화되어 [bæ̃n]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banana'와 같은 낱말에서는 모음 /æ/ 뒤에 비자음 /n/이 뒤따라 오지만 'ban'[bæ̃n]에서와 같은 비음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음화 현상이 언제나 모음이 비자음 앞에 올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음이 비자음 뒤에 올 때에도 그 비자음의 발음이 다 끝나기 전에 모음이 시작되어 비음화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night'는 [nāit]로 발음된다. 'phone'의 경우 선행적 공동조음이 일어나 [fōwn]이 되지만 'phonology'에서는 비자음 /n/ 앞에 오는 모음에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n/ 바로 뒤에 오는 모음에 비음화가 일어나 [fənōlɔdʒi]가 된다. 이와 같은 영어의 비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음절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자음에 인접한 모음이 비자음과 같은 음절에 속하면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각각 다른 음절에 속하면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만 타당할 것이다. 즉 'phone'[fōwn]에서는 /n/이 그 앞에 오는 모음과 동일음절에 속하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phonology'[fənōlɔdʒi]에서는 /n/이 [fə-nō-lə-dʒi]와 같이 앞음절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 음절에 속하므로 비음화가 /n/ 다음에 오는 모음에서만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음성학적인 면에서도 음절단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음절이라는 단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실재하는 것임을 심리적인 면과 음성학적인 면에서 보았고, 음운론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생성음운론 초기의 표준이론에서는 음절을 음운론의 단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절음이나 경계표시에 의존하여 음운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표준생성음운론을 대표하는 Chomsky & Halle(1968)에서는 +, #, =와 같은 3종류의 연접을 설정하여 음운규칙을 적용한다. 음절이라는 술어를 강제규칙을 설명

할 때 사용하고는 있으나 형식상의 지위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음절을 음운단위로 받아들이지 않은 초기 생성음운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형태소 내의 음절 경계 설정이 결코 음소적일 수 없으며 보편원칙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기술에 음절 경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절말 무성음화 규칙을 $C \rightarrow [-voice] / ___\$$ 와 같이 쓰지 않고, 대신에 음절경계를 결정하는 모든 분절적 음절 요소들을 규칙속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C \rightarrow [-voice] / ___\left\{ \begin{matrix} \# \\ C \end{matrix} \right\}$. 여기에서 C, V 그리고 # 대신에 음절경계 $\$$ 를 사용하여 규칙을 쓰는 것이 음운론적인 진술을 때로는 간결하게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른 것으로 대치하여 기술할 수 있으므로 음절경계는 아무런 음운론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의 생성음운론에서 아무런 지위를 얻지 못하던 음절이 다시 음운론에서 하나의 단위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Pulgram(1970), Vennemann(1972), Hooper(1972)의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Hooper(1972)는 Akan어의 비음화 현상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언어에서는 동일 음절내에 있는 비자음 앞에 나타나는 고모음은 비음화된다. 이 비음화 현상을 음절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규칙으로 쓸 수는 있으나³⁾, 이 규칙은 두 개의 환경, 즉 하나는 '다른 자음 앞에 있는 비음 앞'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소 끝에 나타나는 비음 앞'이라는 환경이다. 이 규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괄호({}) 안에 있는 C와 #가 자연부류를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음운규칙의 환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Akan어의 비음화 현상 뿐만 아니라 다른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표준생성음운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환경이다.⁴⁾ 여기에서 음절 문제가 제기되었고 음절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Hooper(1972)는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 $/ ___\left\{ \begin{matrix} C \\ \# \end{matrix} \right\}$ 대신에 음절을 음운론적 단위로 보고 분석할 때 음운론적 사실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언어의 음운구조에서 음절은 필요한 단위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음운론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고 생성음운론에서도 음절의 지위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Pulgram(1970)과 Hooper(1972)는 음절구조를 결정짓는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Pulgram(1970)은 음절구조를 결정짓는 보편적인 3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가능하면 각 음절은 개방음절이 되어야 된다는 최대 개방음절 원칙이다. 둘째는 음절이 개방음절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음(coda)은 가능한한 짧아야 한다는 최소의 말음과 최대의 두음(onset) 원칙이다. 셋째는 위의 최대의 두음 원칙이 적용되기도 어두에 허용되지 않는 자

3) $\left[\begin{matrix} V \\ +high \end{matrix} \right] \rightarrow [+nasal] / ___\left[+nasal \right] \left\{ \begin{matrix} C \\ \# \end{matrix} \right\}$

4) 독일어의 음절말 무성음화 현상을 설명하는 $C \rightarrow [-voice] / ___\left\{ \begin{matrix} \# \\ C \end{matrix} \right\}$ 규칙이나, 영어에서 [r]을 발음하지 않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규칙 $r \rightarrow \emptyset / ___\left\{ \begin{matrix} \# \\ C \end{matrix} \right\}$ 의 예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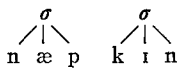
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들은 앞 음절의 말음에 가져다 놓게 되며, 이 때 생기는 불규칙성의 부담을 말음이 지게 되는 불규칙말음 원칙이다.

그러나 음절구조와 음절구조의 기술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서 확립된 이론을 가져오지 못했다. Vennemann(1972)과 Hooper(1972)에서는 전통적인 표준생성음운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음절경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음절경계는 분절음들과 동일한 선상에 나열되기 때문에 어디에 음절경계가 놓여야 되는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음절내에서 직접구성성분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음소배열제약에 대한 설명력이 없어, 음절경계를 이용한 음운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Kahn(1976)과 Selkirk(1982)에서 지적하고 있다.

Kahn(1976)은 음절을 분절음보다 크고, 낱말보다 작은 단위로 간주하고 분절음층위에 음절을 나타내는 별도의 음절층열(syllable tier)을 만들고 연결선으로 분절음층열에 연결하도록 하여 음절을 계층적인 것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분절음층열과 음절층열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양음절의 속성을 갖는 자음이 들어 있는 'hammer'와 같은 낱말을 음절화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hn(1976)은 3개의 기본적인 음절부여 규칙(syllable structure assignment rule)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력연쇄에 [+syllabic] 자질을 가진 분절음은 독립된 음절핵을 이루어 한 개의 음절과 연결된다. 둘째, 음절초 자음군이 허용되는 최대의 자음의 연속이기만 하면 후속하는 모음과 한 음절이 된다. 셋째, 위의 둘째 규칙에 의해 후속하는 모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음절말 자음군이면 선행하는 모음과 한 음절이 된다.⁵⁾ 이 음절부여규칙은 표면형에서 범어적 규약⁶⁾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Kahn(1976)의 계층적 음절표시 방법은 음절핵을 주변요소와 구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syllabic] 자질을 부여하여 해결하려 했다. 그리고 음절표시에서 보더라도 '가능한 초두자음군'과 '가능한 말미자음군' 개념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음절화 과정에 관한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elkirk(1982)는 Kahn의 음절구조로는 음소배열제약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을 지적하고 음절의 내적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기술해야 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음절을 두음과 자운(rhyme)으로 나누고, 자운을 핵음(peak)과 말음으로 더욱 계층적 구조로 만들으로써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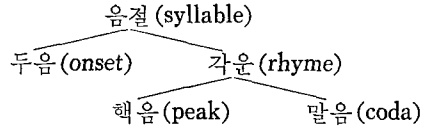
5) Kahn의 음절 이론에 따라 영어의 'napkin'은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로 기술된다.



6) Kahn(1976)에서 제시한 범어적 규약은 다음과 같다 :

- a. Each [+syllabic] segment is associated with exactly one syllable.
- b. Each [-syllabic] segment is associated with at least one syllable.
- c. Lines associating syllables may not cr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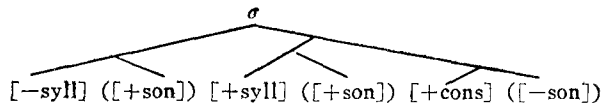
포위치에 따라 존재하는 음소배열제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또한 이와 같은 음절의 계층적 구조는 강세와 같은 음운현상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중음절 (heavy syllable), 경음절 (light syllable) 그리고 개음절 (open syllable)과 폐음절 (closed syllable)에 따라 강세와 같은 음운현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음절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음절을 구별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음절수형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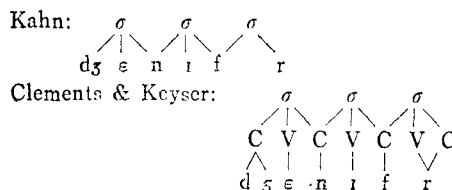
Clements & Keyser(1983)는 계층적 음절구조는 이분법의 방식을 택하므로 CV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분기되지만, CVCC는 5가지, CCVCC는 14가지의 분기방법이 가능하므로 분기방법에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계층적 음절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Kahn에서 제시한 음절구조를 발전시켜 음절총열과 분절음총열 사이에 CV-총열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⁸⁾ 그리고 이 CV-총열은 보편적인 음운기술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CV-총열을 설정함으로써 V의 지배를 받는 분절음은 음절핵(nucleus)이고 C의 지배를 받는 분절음은 비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syllabic]의 자질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CV-총열의 도입은 CV-총열의 요소들이 시간단위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CV-총열의 도입으로 언어마다 고유한 기본음절 개념을 설정하고, 이 기본음절을 통하여 그 언어의 음절화와 재음절화 개념을 설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보편적인 음절이론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lements & Keyser(1983)는 모든 낱말은 기저구조에서 기본음절 구성원칙에 의해 음절화되고, 표면구조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재음절화규칙이 적용되어 표면구조를 생성해 낸다고 주장한다.

Levin(1984)은 CV-총열은 비경제적이며, 때로는 언어의 음운현상에 대해 일반성을 포착

7) Selkirk(1982)에서 제시한 영어의 음절형판(template)은 다음과 같다 :



8) 영어 낱말 'Jennifer'에 대한 Kahn의 음절구조와 Clements & Keyser의 음절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X-층열을 제시하고 있다. Hyman(1985)는 소문자 x로 나타내는 중량(weight) 층열을 설정하고, 이 중량단위를 최소의 운율적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Hayes(1989)는 중량층열 대신에 모라층열을 설정하여 보상적장음화와 같은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최근 대부분의 생성음운론자들은 음절이라는 단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음절단위를 얻기 위해 음절구조부여규칙이 있어야 하며, 이 규칙의 일부는 보편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음운규칙과는 달라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에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도출의 각 단계마다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재조정되어 재음절화가 일어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음절이라는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설명력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음절이라는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4. 음절의 역할

이 장에서는 음성변화에서 음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음성변화의 유형을 따라 살펴 보려 한다.

4.1. 등 화

조건적 음성변화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동화(assimilation)현상인데, 이것은 인접해 있는 두 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동일한 음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유사한 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동화현상은 음성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어떤 음의 결합을 발음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화현상을 보면, 자음이 다른 자음에 동화되는 자음동화(consonant assimilation)가 있고, 자음이 인접한 모음에 동화되어 나타나는 구개음화(palatalization) 현상과 원순음화(labialization) 현상이 있다. 그리고 모음이 다른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모음이 영향을 받는 모음 뒤에서 동화현상을 보이는 모음변이(umlaut)와 영향을 주는 모음이 영향을 받는 모음 뒤에서 나타나서 동화현상을 일으키는 모음조화(vowel harmony)가 있으며,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를 일으키는 비음화현상(nasalization)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으며,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음절의 개념을 이용한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으로, 이 가운데 몇 가지 현상만을 설명해 보려 한다.

자음동화 가운데 명확한 종류의 예는 자음군 -ct-와 -pt-가 라틴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변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Lat. noctem>Ital. notte 'night,' Lat. factum>Ital. fatto 'done,' Lat. septem>Ital.

sette 'seven,' Lat. aptum > Ital. atto 'apt, fit for'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성파열음 p와 k가 t 바로 앞에서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t가 된다. 이것은 t가 앞에 있는 p나 k를 동화시키는 역행동화(regressive assimilation)인데, 순행동화(progressive assimilation) 보다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화현상이다. 위의 역행동화를 규칙으로 써 보면 $\left[\begin{array}{l} +\text{stop} \\ -\text{voice} \end{array} \right] \rightarrow t / ___ t$ 이다. 이탈리아어의 발달에서 모든 파열자음군과 비자음(nasal consonant)군은 이와 같은 역행동화 방식으로 동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어의 somnum 'sleep'은 이탈리아어에서는 sonno가 되었다.⁹⁾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탈리아어의 발달에서 자음군의 동화는, 각기 다른 음절에 속하여 있는 자음의 동화인 것이다. 'noctem'을 예로 들어보면, $\begin{array}{c} \sigma \qquad \sigma \\ \diagdown \quad \diagup \quad \diagdown \quad \diagup \\ n \quad o \quad c \quad t \quad e \quad m \end{array}$ 에서 앞음절의 [k]가 뒷 음절의 첫 음인 [t]에 완전동화되며 [t]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시적인 자음군의 동화현상을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음절에 속하여 있으면서 인접해 있는 자음 간의 동화라 할 수 있다.

Luganda어에서 공시적인 자음의 동화현상을 볼 수 있다.

m-bala	'I count'	ɲ-ɲagala	'I like'
m-pa	'I give'	ɲ-ɲumya	'I converse'
m-mala	'I finish'	ɲ-coppa	'I become destitute'
n-sika	'I show'	ɲ-kola	'I work'
n-neɲa	'I blame'	ɲ-gula	'I buy'
n-tema	'I cut'		

여기에서 'I'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p, b, m]과 같은 양순음 앞에서는 [m]으로, [t, d, n, s]과 같은 치경음 앞에서는 [n]으로, [c, ʃ, ɲ]와 같은 구개자음 앞에서는 [ɲ]로 그리고 [k, g]와 같은 연구개음 앞에서는 [ɲ]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뒤따르는 자음의 조음위치에 예견하면서 'I'를 나타내는 형태소 조음위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동화(partial assimilation)이다. 이것도 이탈리아어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음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접해있는 자음들 간에 동화가 일어나게 된 예이다. m-bala 'I count'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begin{array}{c} \sigma \qquad \sigma \qquad \sigma \\ \diagdown \quad \diagup \quad \diagdown \quad \diagup \\ N-b \quad a \quad l \quad a \end{array}$ 에서 비자음 N가 뒤에오는 [b]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m]으로 실현되고 난 후, 재음절화가 일어나 $\begin{array}{c} \sigma \qquad \sigma \\ \diagdown \quad \diagup \quad \diagdown \quad \diagup \\ m \quad b \quad a \quad l \quad a \end{array}$ 와 같이 된다.

9) 역행동화보다는 덜 보편적이지만 흔히 나타나는 순행동화의 비자음군 동화를 라틴어에서 불어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비자음군 사이에 있는 모음의 상질이 먼저 일어남).

hominem > homme 'man'
nomināre > nommer 'to name'

그러나 직접 인접해 있지 않으면서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어 온 예가 있다. 인구어의 *penk^we ‘five’는 라틴어에서는 quinque[k^wi:nk^we]로 변하였고, pre-Germanic에서는 *penpe(>Germ. fünf)가 되었다. 이것도 음절의 개념을 도입하면 역시 인접한 음절의 자음간의 동화라 할 수 있다. Selkirk의 음절수형도에 의하면¹⁰⁾ 라틴어의 경우는 각 음절 두음간의 역행동화이며, pre-Germanic의 경우는 순행동화인 것이다. 그러나 한 두 음절을 사이에 두고 그 음절을 뛰어 넘어 동화되는 예는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인접한 음절간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음의 동화라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음동화만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언어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모음동화현상이 있다. 이 모음동화는 일반적으로 모음변이나 모음조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으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볼 수 있다.

게르만어의 발달에서 모음의 역행동화를 볼 수 있다. Old High German의 scōni ‘beautiful,’ dūnni ‘thin,’ mahti ‘might’는 Middle High German에서 각각 schön, dünne, mähte로 변하였다. 이 변화는 어말에 있는 전설 고모음 -ie에 의해 앞에 있는 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동화된 것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써 보면 $V > [+front]/ __ C_0 i$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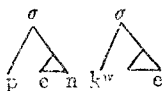
터어키어의 발달에서는 모음의 순행동화를 볼 수 있다. 14세기경의 Old Anatolian Turkish와 Modern Standard Turkish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Old Anatolian의 benüm ‘mine’, bilür ‘knows’, gelüp ‘going’은 Modern Turkish에서 각각 benim, bilir, gelip으로 변하였다. 이 터어키어의 변화에서는 각 낱말의 둘째 원순모음이 첫째 모음의 비원순성에 동화되어 비원순 모음이 되었다. 이것을 규칙으로 쓰면 $V > [-round]/ \left[\begin{matrix} V \\ -round \end{matrix} \right] C_0 __$ 이다.

게르만어와 터어키어의 발달에서 볼 수 있는 모음동화 현상은, 인접해 있는 자음간에 일어나는 자음동화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자음들이 중간에 들어 있어 동화자질이 그 중간에 있는 자음들 사이에 두고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음절개념을 이용하여 보면 역시 인접한 음절간의 동화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두 규칙에서 보듯이 동화되는 두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C₀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음절구조로는 인접한 두 음절의 핵음(peak, 혹은 nucleus)간의 동화현상이다. 그러므로 음절구조로 동화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간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4.2. 이 화

이화(dissimilation)는 동화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음의 연쇄체에서 같거나 유사한 음이 두

10)



개 이상 연속해 있거나 간격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가운데 한 쪽이 서로 다른 음으로 되는 변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낱말을 발음할 때, 같은 근육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이 어려워 이화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화는 일반적으로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현상이지만 규칙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Grassmann 법칙이다. 즉, 희랍어나 산스크리트어에서 한 낱말에 두 개 이상의 유기음이 있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유기음 이외에는 모든 유기음이 이화하는 현상이다. 희랍어의 발달에서 보면, Pre-Greek **thrikhós* ‘of hair’에서 희랍어의 *trikhós*, **phewthomaj* ‘lengthen’에서 *pewthomaj*로 변하였다. 산스크리트어의 발달에서는 PIE의 Pre-Sanskrit **bhuddhá* ‘awake’에서 산스크리트어의 *buddháro*로 변하였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공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stop] > [-aspiration]/___(x)[+aspiration]. 위의 규칙을 음절구조로 분석해 보면, 뒤따르는 음절에 유기음이 있을 경우 앞 음절의 유기음엔 이화가 일어난다. 즉 인접한 두 음절의 두음(onset)에 유기음이 있을 경우 앞 음절의 유기음은 이화한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환경이 충족될 때마다 적용되어 결국 가장 우측에 있는 유기음만 남게 된다고 설명한다면 위의 이화현상을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4.3. 음전위

음의 연속체내에서 어떤 두 음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을 음전위(metathesis)라 한다. 이 음전위는 많은 언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산발적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유음(l, r)과 모음간에 음전위가 일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써 보면 유음 l, r을 R로 표시하고 모음은 V로, 그리고 자음을 C로 나타내었을 경우 (C) V R C > (C) R V C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Pre-Slavic **gordŭ* > Old Church Slavic *gradŭ* ‘city’, PS **melti* > OCS *mlěti* ‘to grind’, 그리고 PS **melko* > OCS *mlěko* ‘milk’와 같이 음전위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음절구조로 설명한다면 슬라브어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허용하지 않고 그 음절은 개음절로 변하므로 이와 같은 음절구조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음전위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페르시아어의 발달에서 어말음 탈락으로 인해 어말자음군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음군에서 음전위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Middle Persian *čaxra* ‘wheel’, *asrum* ‘earth’, *namra* ‘mild’에서 어말음들이 탈락하고 또 음전위가 일어나 New Persian어에서는 각각 *čarx*, *ars*, *narm*이 되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음전위현상을 음절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음절내에서 선호하는 음결합은 음절내의 핵음을 중심으로 음절경계 쪽으로 갈수록 각 음의 공명도(sonority)는 감소하는 것이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즉 두음의 자음군이 있을 경우 첫 자음보다는 둘째 자음의 공명도가 높아야 하며, 말음의 경

우에는 음절끝으로 갈수록 공명도는 낮아야 한다. 이 음절구조에 맞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는 음전위가 일어나서 선호하는 음절구조에 맞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čaxra*에서 어말음 탈락으로 형성된 *čaxr*의 *x*와 그 위에 오는 *r*의 공명도를 비교, 선호하는 공명도에 의한 음절구조에 맞추기 위해 음전위가 일어나 *čarx*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4.4. 첨 가

어떤 음의 연쇄체에 어떤 음이 삽입되는 현상을 첨가(addition)라 하는데, 이는 어두에 첨가되기도 하고, 어중에 첨가되기도 하고, 어말에 첨가되기도 한다.

라틴어에서 서로만스어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두음첨가 현상을 볼 수 있다. 라틴어에서 어두자음군 *sp-*, *sk-*, *st-*가 서반아어와 같은 서로만스어에서는 모음 *e*가 어두에 첨가되어 규칙적으로 각각 *esp-*, *esk-*, *est-*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Lat. spatula* > *Span. espad* 'back', *Lat. scola* > *Span. escuela*, *Fr. école* (<*OF. escola*, 'school', *Lat. stella* > *Fr. étoile* 'star'에서 보듯이 음절초의 *s*+파열음의 자음군 앞에 어원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음 *e*가 첨가되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는 음절초에 자음군 *sp-*, *sk-*, *st-*를 허용하던 음절구조가 서로만스어체어로 발달되면서 음절초에 이와 같은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음절구조의 압력으로 서반아어와 불어의 음절구조에 맞도록 자음군을 재음절화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e*를 첨가하여 새로운 음절구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e*의 첨가로 인하여 음절초의 *s*는 *e*와 함께 한 음절을 이루게 되었고, *s*는 그 음절의 말음이 되었다. 라틴어 *spatula*를 예

로 들어 보면, $\begin{matrix} \sigma & & \sigma & & \sigma \\ | & & | & & | \\ s & p & a & t & u & l & a \end{matrix}$ 의 음절구조에서 *e*의 첨가로 $\begin{matrix} \sigma & & \sigma & & \sigma & & \sigma \\ | & & | & & | & & | \\ e & s & p & a & t & u & l & a \end{matrix}$ 와 같이 음절이 한 개 더 생기게 되면서 같은 음절에 속하던 자음군 *sp*는 따로 떨어져 다른 음절에 속하게 되었다.

어중에 첨가하는 음에는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는데, 모음이 어중에 첨가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조음하기 어려운 자음군을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틴어의 *facilis* 'easy', *pōculum* 'goblet'는 각각 *faclis*와 *pōclum*에서 자음군 *cl*사이에 모음이 첨가되어 발달한 것이다. 이 때 첨가되는 모음은 바로 뒤에 오는 음절의 모음과 같은 모음이 된다. 여기에서 조음하기 어려운 자음군을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모음이 첨가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CV의 음절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hibatani(1973)는 어중모음의 첨가현상을 일본어의 동사발달에서 보여 주고 있다. 고대 일본어는 CV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yom+tari* 'read+perfective'와 *kir+tari* 'cut+perfective'와 같이 동사의 활용어미가 붙을 때 나타나는 자음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음 *i*를 삽입하여 자음군을 분리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결과 *yomitari*와 *kiritari*가 되

었는데, 이 모음삽입으로 자음군형성을 막은 것은 9세기 말경이었다. 일본어의 동사발달에서 고대 일본어의 음절구조 CV의 압력으로 모음이 삽입되었고, 그 결과 CV의 음절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현대국어에서 외래어를 도입할 경우 모음의 첨가현상이 나타난다. 영어가 국어에 도입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영어 : 'camp'→국어 : [kʰæmpʰi], 'tent'→[tʰentʰi], 'trunk'→[tʰirʌŋkʰi], 'desk'→[deski], 'dance'→[dænsi], 'spring'→[sipʰirip], 'bus'→[basi], 'set'→[setʰi]. 이 예에서 보면 어말 자음뒤에 [i]가 첨가되기도 하고 어두 자음군 사이에 [i]가 첨가되기도 한다.¹³⁾

이것을 음절이론으로 설명하면 3종류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음절말에 자음군 /-mp, -nt, -nk, -sk, -ns/가 올 때에 [i]의 첨가는 국어에서는 음절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아 자음군 가운데 앞의 자음만 음절화되고 뒤의 자음은 음절화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즉 camp의 경우 $\begin{matrix} \sigma \\ | \quad | \\ k^h \quad \text{æ} \quad m \quad p \end{matrix}$ 와 같이 된다. 이때 음절말자음군 가운데 음절화가 되지 않은 자음 뒤에는 [i]가 첨가 되어 음절을 이루게 되어 선호하는 음절구조를 이루게 된

다. 즉 $\begin{matrix} \sigma & \sigma \\ | \quad | & | \quad | \\ k^h \quad \text{æ} \quad m \quad p & i \end{matrix}$ 와 같이 재음절화된다. 둘째, 음절초의 자음군 /tr-/이나 /spr-/의 경우에도 국어에서는 음절초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음에 인접한 두음 하나만 음절화되고 나머지 자음들은 음절화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spring'의 경우

$\begin{matrix} \sigma \\ | \quad | \\ s \quad p^h \quad r \quad i \quad p^i \end{matrix}$ 이 되고 s와 p^h는 음절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s와 p^h 뒤에 [i]가 첨가되어

재음절화되어 $\begin{matrix} \sigma & \sigma & \sigma \\ | \quad | & | \quad | & | \quad | \\ s \quad i \quad p^h & i \quad r & i \quad p^i \end{matrix}$ 이 된다. 셋째, 'bus'와 'set'의 경우, 음절말 자음 -s와 -t가 모두 음절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음뒤에 [i]가 첨가된다. 반면, 'cup'과 'sack'에서는 말음뒤에 모음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어에서 외래어를 차용할 때 [i] 첨가규칙이 [+coronal]의 자질을 가진 음절말 저해음에만 적용되도록 공식화 시켜 설명하면 되리라 생각한다.¹⁴⁾ 이와 같이 국어에 도입된 외래어에 나타나는 [i] 첨가현상을 음절이론을 도입하여 간결하고 일반성있게 설명할 수 있다.

11)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yondari, kittari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어에 차용되어 들어오게 된 수많은 중국어의 낱말로 말미암아 일본어의 음절구조에 영향을 주어 CVV나 CVC의 음절구조를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2) 이해숙(198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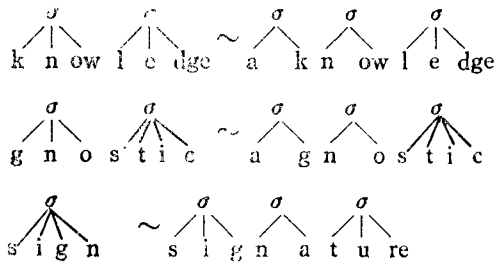
13) 국어에서 다른 모음이 아닌 [i] 모음이 첨가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국어의 [i] 모음은 영어의 [ɪ]와 대체로 같은 성질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14) Kahn(1976) pp. 48-52 참조(/t/와 /p, k/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

4.5. 상 실

음 연쇄체내의 어떤 음이나 음절이 소멸하는 현상을 음의 상실(deletion)이라 하는데, 이 상실현상의 대부분은 모음의 상실이다. 상실되는 위치에 따라 어두음 상실(aphesis), 어중음 상실(syncope) 그리고 어말음 상실(apocope)이라 한다. 그러나 자음의 상실에는 특별한 명칭이 따로 없다.

모음이 어두에서 상실되는 경우, 주로 강제위치의 변동에 따라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영어발달에서 어두자음 [k, g]가 [n] 앞에서 상실된 것을 볼 수 있다. 고대영어에서는 [k, g]가 그대로 유지되어 *cnafa*[knava] ‘knave’, *cniht*[knixt] ‘knight’나 *gnosis*[gnosis]와 같이 [k, g]가 상실되지 않았으나 17세기 후반에 [k, g]가 [n] 앞에서 상실되기 시작했다. 현대영어의 *knowledge*, *knave*, *knit*, *gnat*, *gnosis*, *gnaw* 등에서와 같이 [k, g]가 발음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게 된다: $k, g > \phi / \# \text{ ___ } n$. 이 규칙은 낱말의 위치로 [k, g]의 상실을 설명한 것이지만, 음절의 위치로 설명한다면 보다 간결하면서 설득력있게 된다. 예를 들면 *knowledge*에서는 음절초의 [k]는 상실되지만 *acknowledge*에서는 [k]가 발음되고, *gnosis*와 *gnostic*에서는 [g]가 나타나지 않으나, *diagnosis*[daiəgnosis], *agnostic*[ægnostik]에서는 [g]가 발음되는 것은 음절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음절초의 [k, g]는 비음 [n]앞에서 상실된다. 이것을 규칙으로 써 보면, $k, g > \phi / \$_{\text{ ___ }} n$ 혹은 $\left\{ \begin{matrix} k \\ g \end{matrix} \right\} > \phi / \left[\sigma \text{ ___ } n \right]$ 와 같이 된다. 그러나 [k, g]가 음절초가 아닌 경우, 즉 뒤에 오는 [n]과 다른 음절에 속하는 경우 [k, g]는 상실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시적인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낱말의 위치로 설명하여 어두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sign*, *signature*에서는 둘 다 어두위치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sign*에서만 [g]가 발음되지 않고, *signature*에서는 발음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낱말에 있는 [g]의 경우에도 음절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위의 예와 함께 더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즉 [k, g]가 뒤에 오는 [n]과 같은 음절에 속하는 경우에는 [k, g]가 상실되고, 다른 음절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을 음절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규칙으로 써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begin{matrix} & \sigma & \\ & / \quad \backslash & \\ \{k \\ g\} & \rightarrow \phi / \quad _ & n \end{matrix}$$

이 규칙은 음절초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같은 음절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k, g]가 상실 여부를 설명하는 보다 더 일반적인 규칙인 것이다.

어중음 상실은 양쪽에 다른 음절로 둘러싸인 중간에 있는 음절의 모음이 상실됨을 말하는데 어중음 상실도 음절 수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고대서반아어의 발달에서

$\begin{matrix} \sigma & \sigma & \sigma & & \sigma & \sigma \\ / \backslash & / \backslash & / \backslash & & / \backslash & / \backslash \\ c & a & l & i & d & u & s > c & a & l & d & o \end{matrix}$ 'beef-tea'와 같이 어중모음 /i/가 상실되므로 세 음절에서 두 음절로 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영어의 발달에서 고대영어의 *stānas*가 현대영어의 *stones*[stōnəz]로 변한 현상을 어중모음 a의 상실로 보기 쉬우나 이것은 고대영어의 *nama*가 현대영어의 *name*[nēmə]로 변하는 것과 같은 어말음 상실의 부류에 넣게 된다. 이들은 마지막 음절에 있는 모음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Hale(1973)은 오스트랄리아어의 Lardil 방언에서 [r]이 비음 앞에서는 선택적으로 [n]이 되지만, 삭제된 비음 앞에서는 필수적으로 [n]이 되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karmukarmu/ 'skinny'가 어말모음 상실과 어말 자음군 간소화 현상으로 [karmukan] 혹은 [kanmukan]과 같이 어말에 [r]이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n]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r]의 동화현상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곳과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절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r]의 동화는 동일음절내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해야만, 이 현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있다.

$\begin{matrix} \sigma & \sigma & \sigma & \sigma \\ / \backslash & / \backslash & / \backslash & / \backslash \\ k & a & r & m & u & k & a & r & m & u \end{matrix}$ 가 어말 모음 [u]의 상실이 일어난 후에는 마지막 음절에 속하던 [m]이 독립적으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재음절화가 일어나 앞 음절에 속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된다. $\begin{matrix} \sigma & \sigma & \sigma \\ / \backslash & / \backslash & / \backslash \\ k & a & r & m & u & k & a & r & m \end{matrix}$ 에서 동일 음절에 속하는 [r m]에서는 동화현

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 [nm]이 되지만, 동일음절에 속하지 않는 $\begin{matrix} \sigma & \sigma \\ | & | \\ r & m \end{matrix}$ 에는 동화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rm] 또는 [nm]으로 나타나, 중간단계에서는 [karmukanm] 혹은 [kanmukanm]이 되고, 여기서 다시 어말 자음군 간소화가 일어나 [karmukan] 혹은 [kanmukan]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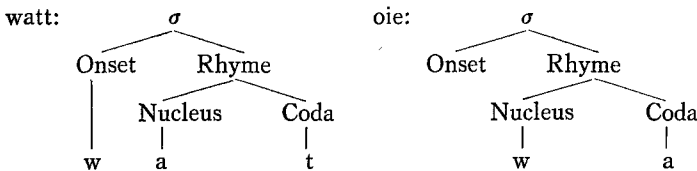
불어의 연독(liaison)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음절이론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불어의 연독현상은 밀접히 연결된 두 낱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둘째 낱말이 모음으로 시

작될 때 정상적으로는 발음되지 않던 첫째 낱말의 끝자음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les chats [leʃat] ‘the cats’, vous voyez [vuvwaje] ‘you see’, c’est petit [sepəti] ‘it is small’과 같이 어말저해음은 어말(혹은 구절말)이나 다음에 오는 낱말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그러나 les amis [lezami] ‘the friends’, vous avez [vuzave] ‘you have’, petit anneau [pətitano] ‘small ring’에서와 같이 둘째 낱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발음되지 않던 첫째 낱말의 끝자음이 발음된다.

여기에서 불어의 연독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연독 자음이 어떤 종류의 자음인가를 알아야 한다. 삽입규칙에 의해 삽입되는 자음인가, 아니면 기저음운표시에 존재하던 자음이 모음이 뒤따라 올 때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은 기저형에 존재하던 자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les /lez/가 [le], petit /pətit/가 [pəti], 그리고 vous /vuz/가 [vu]로 발음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상실되는 자음에 관한 규칙은 $[-\text{sonorant}] \rightarrow \phi / ___ \# \left\{ \begin{array}{c} C \\ \# \end{array} \right\}$ 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상실되지 않는 자음은 뒤따라 오는 낱말의 모음과 한 음절을 이룬다.

그런데 les watts [lewət], les Western [lewestern]과 les oies [lezwa], les oints [lezwɛ]의 두 부류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음성연쇄 [-wa-]나 [we~wɛ] 앞에서 연독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음절구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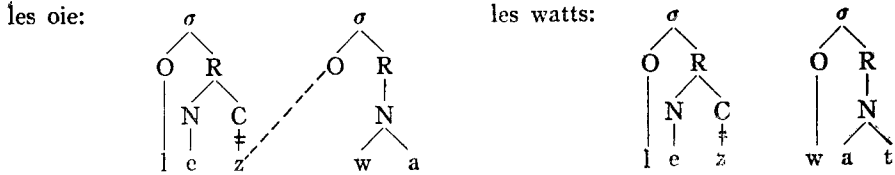
먼저 음절을 두음과 각운으로 나누고 각운을 다시 두 개의 하위구성성분으로 나눌 때, 활음 [w]의 두 가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즉 watt[wət]의 [wa]에서 [w]는 자음과 같은 것으로 보아 두음에 그리고 [a]는 핵음에 속하게 하는 반면, oie[wa]의 [wa]는 상승이 중모음으로 간주하여 핵음에 속하게 하면 두음이 비어있는 음절구조가 된다. 이들의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에 les /lez/가 앞에 오면 les watt에서는 두음에 [w]가 있기 때문에 les /lez/의 /z/는 상실되지만, les oie에서는 두음자리가 비어있어 les /lez/의 /z/는 뒤따라 오는 낱말의 두음자리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앞 낱말의 말음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어 연독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¹⁶⁾

15) Kaye & Lowenstamm(1984) 참조.

16) 그러나 다른 해결방법으로는 watt나 Western과 같은 외래어의 경우 예외로 표시하여 다룰 수도 있다.



5. 맺음말

모든 언어의 음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변화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밝혀보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채 음성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음성변화의 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는데에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비단선음운이론의 영향을 받아 음절이 음운론적인 단위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여 많은 음운현상들을 설명하게 되면서, 음성변화의 연구에도 음절이론을 적용하면 음성변화의 상당한 부분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수많은 음성변화 가운데 음절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찾아보면서 그 설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며, 이것을 발판으로 더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음절이론을 적용한 음성변화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함께 담고 있는 연구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음성변화라 함은 음성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발음의 변화와 음소의 수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변화를 합한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며, 또한 통시적인 음성변화 뿐 아니라 공시적인 음성변화도 모두 포함한 명칭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통시적인 음성변화와 공시적인 음성변화를 명확히 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려는 처음 가졌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한 유형속에 함께 넣어 설명하고 말았다. 그리고 음절의 개념을 갖기 위해 대표적인 음절이론을 살펴 본 후 음절변화의 유형(동화, 이화, 음전위, 첨가, 상실)에 따라 음절이론을 적용시켜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통시적인 동화나 이화 현상은 다른 음절에 속하는 음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시적인 동화 현상이나 모음의 첨가, 음전위, 상실 현상은 동일 음절에 속하는 음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호하는 음절구조의 압력때문에 자음과 자음사이에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음절간에 일어나는 음성변화의 문제를 선호도법칙과 관련시켜 다루려 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방한(1988). 「역사비교언어학」, 민음사, 서울.
- 이병진(1982). “음절이론에 관하여”, 「현대 언어학 연구」, 신아사, 서울.
- 문양수(1988). “음운론에서의 음절”, 「언어학」 9·10, 한국언어학회, 서울.
- 문양수(1991). “미국학계의 음운이론의 변천”, 「언어학연구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이혜숙(1986). “국어의 삽입현상에 대한 음절음운론적 연구”, 「이대논총 48집」, 서울.
-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Arlotto, A. (1972).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ell, A. & J.B. Hooper (eds) (1978). *Syllables and Segment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Bynon, Th. (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C.C. & W.S-Y. Wang (1973). “Sound Change: Actuation and Implementation,” *Language* 51.
- Chomsky, N. &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s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Clements, G.N. & S.J. Keyser (1983). *CV Phonology: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Cambridge, Mass: MIT Press.
- Durand, J. (1990), *Generative Non-Linear Phonology*, London: Longman.
- Fromkin, V.A. (1973). *Speech Errors as Linguistic Evidence*, The Hague: Mouton.
- Hale, K. (1973). “Deep-structure canonical disparities in relation to analysis and change: An Australian example,” in T.A. Seboek et al. (eds.),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II, 401-458.
- Hayes, B.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dern Phonology,” *LI* 20.
- Hock, H.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 Hooper, J.B. (1972).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525-540.
- Hyman, L.M. (1985). *A Theory of Phonological Weight*,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Jeffers, R.J. & I. Lehiste (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Mass: MIT Press.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 Part I Sounds and Spellings*. rp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ndian University Linguistic Club, Bloomington, Indiana.
- Kim, K-O & M. Shibatani (1976). "Syllabification Phenomen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2.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ng, R.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Kohler, K.J. (1966). "Is the syllable a phonological universals?" *Journal of Linguistics* 2:207-208.
- Levin, J. (1984). "Reduplication and Prosodic Structure," *Phonology and Morphology* 1,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Maddieson, I. (1985). "Phonetic cues to syllabification," In V.A. Fromkin(ed.), *Phonetic Linguis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Malmberg, B. (1964). "Juncture and syllable division," In D. Abercrombie, *In honour of Daniel Jones*(pp.116-119), London: Longmans.
- Malmberg, B. (1967). "The phonetic basis for syllable division," In I. Lehiste (ed.), *Readings in Acoustic Phonetics*(pp.293-300), Cambridge, MA.: MIT Press(Reprinted from *Studia Linguistica*, 1955, 9, 80-87).
- Murray, R.W. and T. Vennemann (1983). "Sound change and Syllable Structure in Germanic Phonology," *Language* 59.3.
- O'Connor, J.D. & J.L.M. Trim (1963). "Vowel, consonant, and syllable: A phonological definition," *Word* 9:103-122.
- Pulgram, E. (1970). *Syllable, Word, Nexus*, The Hague: Mouton.
- Selkirk, E.O. (1982). "The syllable," In H. Hulst & N. Smith(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art II, Dordrecht, Holland: Foris Publications.
- Shibatani, M. (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3.
- Vennemann, Theo. (1978). "Universal syllabic phonology," *Theoretical Linguistics* 5:175-215.
- Vennemann, Theo. (1972). "On the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18:1-18.

The Role of the Syllable in Sound Change

Yang-Soo Moon

Sound change has a long and troubled history in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s. A group of linguistics so-called neogrammarians drew a lot of attention on sound change. Since then many linguists who were interested in linguistic change led a great deal of valuable and interesting research on sound change as well. Explanations of sound change have been sought. But they are not fully satisfactory, even though many important insights have been achieved on that.

This paper is to discuss that sound change can be most appropriately accounted for on the basis of a syllable theory. According to the types of sound change I tried to find some examples which syllables actively interacted with sound change in some instances. It seems that the syllable has an important role in sound change. It seems appropriate first to make clear what are meant by the terms, "sound change" and "syllable."

Sound change is a representation that contains phonological changes and phonetic changes. Syllables are built around a syllable nucleus, the most sonorous element in the syllable. Here I reviewed the arguments of several linguists about the existence of the syllable as a phonological unit.